

736 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도안골옥녀봉기우제



대전광역시



도안골 옥녀봉 기우제

■ 일시

1995년 10월 11일 (수요일)

■ 장소

충남 공주시 공설운동장

● 인사말씀



우리 고장의 전통민속인 도안골옥너봉기우제가, 충청남도 공주 에서 열리는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가 부사칠석놀이를 훌륭히 재현하여 영예의 대통령 상을 수상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난해의 전통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도안골옥너봉기우제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고장 서구 도안동 일원에서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온 대전의 뿌리깊은 전통문화 유산입니다.

농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가뭄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여 농업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재(天災)를 막는 방편으로 하늘에 제사지내는 기우제의 발생은 아주자연스런 일이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민속신앙을, 급속한 산업화로 전통문화가 점차로 퇴색해져 가는 오늘날에 발굴·재현하려는 노력과 정성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지만, 이같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자면 전통문화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선조들의 애환이 담긴 향토문화의 창조적인 발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애향심은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전통민속을 발굴하고 또한 이의 훌륭한 연출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백제의 전통과 혼이 살아숨쉬는 이곳 공주에서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온 국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성대하게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1995. 10.



도안골 옥녀봉 기우제



● 유 래

도안골은 대전 남서부 옥녀봉의 남동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락리,가둔리, 도안리, 음지말등 4개마을을 합쳐서 도안골이라 부르다가 1982년 행정구역 개편에따라 도안동으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상으로 대전광역시에 포함되지만 생활환경과 지형조건은 여느 시골과 다름없는 전통적 촌락이다.

도안골 옥녀봉기우제 전승회원과 촌로들이 골고루 증언하는바에 의하면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가뭄이 심할때 도안리,가락리,가둔리,음지말 4개마을 촌장들이 마을에 모여 가뭄대책을 의논하여 옥녀봉에서 기우제를 지내자고 합의하고 기우제를 올렸다고 한다.

특히, 기우제를 지내는 3일전부터 마을주민 모두가 부정이 되는 일은 피했으며 기우제 전에는 목욕을 하고 옷을 정갈히입고 각마을 대표들이 모여 해질무렵 옥녀봉에 올라 풀을 깔고 황토흙을 깔은후 오방기를 세워 기우제 지낼장소 주위를 청결히 하였다.

이러한 기우제는 한반도 내륙지방 어느곳에서나 많이 유래되는 풍습이지만 도안골 옥녀봉기우제는 대동기우제와 아낙네기우제로 두번에 나누워 제를 올리는 것이 특이하다.

이와 같은 도안골 옥녀봉기우제는 오랜 역사속에 계승해 오다가 일제의 문화말살정책과 6·25전쟁등으로 인하여 일시 중단되었으나가뭄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촌로들을 주축으로하여 1989년부터 다시 재현하여 보존하고 있는것이다.



도안골 옥녀봉 기우제



● 특성 및 의의

이 기우제의 핵심은 온주민이 비를 기원하는 대동기우제이다.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강우지신을 화가나게 하여 비오기를 기대하는 아낙네기우제로 이어진다. 이 아낙네기우제는 키춤, 냇가물놀이, 물까불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우제이며, 이어서 온마을 주민의 화합의 놀이마당으로 절정을 이룬다.

근래에들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부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형문화에 향토색 짙은 우리조상의 소탈하고 소박한 얼이 담겨있는 전통의 멋과는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시대에 『도안골 옥너봉기우제』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자 하는 옛선인들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마지막 부분에서 재현하는 비를 내려주신 강우지신께 감사하는 놀이마당은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화합하고 단결하는 지혜를 모으는 놀이라는 점에서 보존하여야 할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기우제는 내륙지방 곳곳에서 많은 형태로 계승되고 있으나 『도안골옥너봉기우제』는 특이하게 대동기우제와 아낙네기우제등 두가지 형태의 기우제를 동시에 지내고, 마지막으로 온주민의 화합잔치를 지내므로 기우제뿐만 아니라 주민화합의 한마당으로 승화발전시킨 기우제라는 점에서 그가치가 있다.



도안골 옥녀봉 기우제



● 해설

○기우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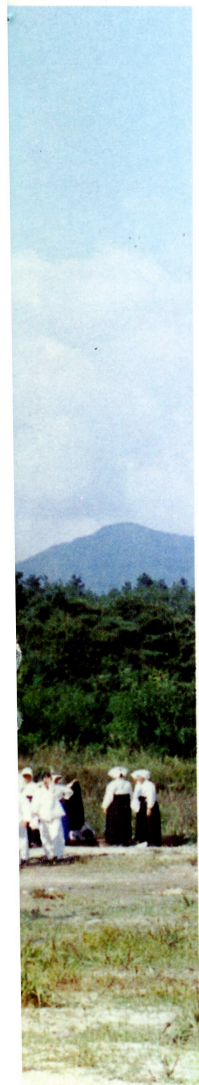
기우제를 지내기 3일전부터 마을사람들은 부정이 되는 일은 피했으며 기우제를 지내는 전날 해질무렵에 마을의 대표되는 이가 옥녀봉에 올라 주변의 풀을 깎고 오방기를 세워 기우제 지낼 장소 주위를 청결하게 한다.

오방기는 중앙에 황색, 동쪽에 청색, 서쪽에 백색, 남쪽에 적색, 북쪽에는 흑색을 세운다. 오방(다섯방향)에는 황토흙을 깔아서 부정을 막는다.

기우제 당일에는 목욕재개를 하고 중의적삼을 깨끗하게 갈아 입은후 마을대표와 집으로 모인다.

이때 마을대표중 나이가 많은 이들이 제례 순서와 축관을 정한다.

기우제를 지내기 위하여 가가호호에서 성심성의껏 재물을 거두워서 떡과 재물을 준비하고 제주는 그해 길운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정하여 제사를 준비한다.



첫 · 썰 · 마 · 당



● 대동기우제

기우제를 지낼 준비가 완료되면 마을 주민들은 영기, 강우지신신위기, 용기, 오방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면서 기우제를 지낼 옥너봉으로 향한다.

옥너봉에 다다르면 옥황상제강우지신기, 용기, 영기를 제사상주변에 둥그렇게 세우고 중앙에는 황색기와 옥황상제 강우지신의 신위를 모시고 제물을 차린다.

황토흙을 밭에 깔고 떡시루를 놓고 시루중앙에 쌀과 쫓불 대신 들기름 종발에 심지를 놓고 불을 붙인다. 삼색실과를 푸짐하게 차려놓고 제사상 중앙에 통돼지를 잡아 올려 놓는다. 푸짐하게 제사상이 차려지면 제주를 중심으로 기우제를 올린다.



도안골 옥너봉 기우제

축관이 축을 읽고 마을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천신과 강우신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빌고 또 빈다. 이때 대동소지와 가가호호 소지를 올리면서 기우제를 지낸다. 이렇게 기우제를 지낼때 제사상주변 오방에 돼지피를 뿌려 잡귀의 근접을 막는 행위를 한다.

또한 장작더미에 청솔가지 불을 피워 주위를 밝게 하고 비를 기원한 후 마을앞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서 장기등 놀이를 하면서 비를 기다렸다.

祝 文

維

祈雨祭祝文

歲次乙亥閏八月己未朔

十七日乙亥한밭道安골

代表金永來

敢昭告于

玉皇上帝降雨之神

下察五方早來極甚

伏以祈雨雨順風調

萬物育成時和年豐

使民不困敬天補國

謹以性幣尊獻尚

饗





돌 · 쟈 · 마 · 강



● 아낙네들기우제

대동기우제를 지내도 비가오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아낙네들이 나선다.

각마을의 부녀자들이 저녁이되면 키와 솔뚜껑, 고쟁이, 간단한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옥녀봉밑 갑천변으로 나온다

개울가에 도착하게 되면 그중 대표 한사람이 개울물로 목욕을 하고 준비해 온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며 비를 기원한다.

이때 아낙네들은 호박과 정구지등으로 지짐질을 해가며 옥황상제와 강우지신을 화나게 하는 축문을 하고 소지를 올려가면서 논다.



도안골 옥녀봉 기우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황상제님 강우지신
사해용왕님 날이 하도 가물어
우리 초근들이 아사지경에 놓여 있으니
장대 같은 비를 내리어
우리 초근들을
살려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황상제님께
비나이다.



셋 · 짜 · 마 · 당



● 키춤 · 솔뚜껑 놀이



도산골 옥녀봉 기우제

제사가 끝나면서 아낙네들은 키와 솔뚜껑을 쓰고 빗자루등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한다.

키를 흔들며 흥겹게 춤을 추는 아낙네도 있고, 머리에 솔뚜껑을 쓰고 앞사람과 서로서로 솔뚜껑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합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는 아낙네들도 있다.

● 아낙네 놀이 유래

에원적 기원의 역습적 방법이 특색이다.

- 빗자루 춤 - 빗자루에 물을 묻혀 거꾸로 세우면 물이 흐르는 형상묘사
- 키 춤 - 키를 까부는 소리가 소낙비 오는 소리와 유사함
- 솔뚜껑 놀이 - 술에서 수증기가 올라가 다시 비가온다고 믿었음

넛 · 짜 · 마 · 당



● 물까불기

흥겹게 놀던 아낙네들은 냇가에서 옷을 벗고 모두 냇물로 들어가
키로 물을 까붙며 빗자루로 물을 뿌리고 논다.

발가벗은 아낙네들은 옆사람의 엉덩이를 두들겨 가며 천신과 우신
에게 욕을 하면서 비를 기다리며 논다. 이런 행위를 비가 내릴때 까지
계속한다. 날이 밝으면 다음날 밤으로 이어져 몇날 몇일을 계속하면
결국 비를 내리게 한다.



다 · 첫 · 짜 · 마 · 당



● 감사의 한마당

넷가에서 놀던 아낙네들이 비가오자 『비들어 온다』 고 소리를친다.
정자나무밑에서 놀던 남정네들도 너무 기뻐서 모두다 뛰어나와 물질하
던 아낙네들과 함께 비를 내려준 강우지신에게 감사의 한마당 잔치를
벌인다.

감사소리

옥황상제님 감사합니다.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녀봉기우제 출연진

역 할	성 명	나 이	역 할	성 명	나 이
제관	김영래	77	동네사람	김흥래	79
추관	박용근	72	"	목영식	81
집사	박민홍	74	"	박윤식	76
"	백담근	73	"	성영모	65
"	유승준	59	"	하상균	65
동네어른	박영두	83	"	강희용	55
기수	박종환	69	"	강창기	70
"	장영원	55	"	유승준	64
"	김용수	40	"	박노용	63
"	박하홍	75	"	박성근	76
"	정종구	73	"	박광식	62
"	정석호	61	"	최보현	56
쇠	박종환	54	"	최동관	60
"	김영중	76	바가지	전순예	53
"	연규	79	"	이춘자	60
징	박정배	66	"	천승배	56
"	성나홍	77	"	송응수	40
장고	김문식	80	"	박갑순	52
"	오원웅	75	"	양태광	44
"	박만천	60	"	임은선	39
"	김창석	40	"	정정희	45
"	유강중	64	"	류재금	46
북	송석우	87	"	황필순	48
"	김명래	69	"	김순례	51
"	정접호	78	"	김찬이	41
"	허전열	34	빗자루	강정열	60
태평소	목성균	44	"	조연실	65
"	김명환	32	"	이재운	70
음식운반	정종일	69	"	진월림	68
"	강희창	52	"	윤승복	61
"	박정근	83	"	민영옥	73
"	정종철	73	"	최삼한	72
"	노성삼	62	"	김옥임	40
동네사람	박성배	74	"	오박순	65
"	민형기	84	"	송종희	66
"	박정근	72	"	오귀영	70
"	정재현	45	"	이종훈	55

솔뚜껑	도	금	숙	68	키	이	복	순	72
"	윤	윤	순	52	"	오	병	태	70
"	송	순	영	63	"	오	형	자	55
"	유	점	열	64	"	김	용	순	62
"	이	상	옥	61	"	이	영	자	42
"	변	정	순	68	"	오	호	순	42
"	조	순	이	62	"	황	하	연	61
"	임	삼	분	64	"	노	재	금	59
"	진	종	희	64	"	정	채	선	83
"	노	갑	순	57	"	목	영	분	70
"	한	상	숙	59	"	이	춘	배	75
동네사람	임	채	선	70	"	송	귀	동	70
"	박	추	자	66	"	금	순	이	65
"	김	선	순	70	"	안	이	태	65
"	임	복	순	62	"	임	난	영	66
"	한	건	수	64	"	임	창	순	70
"	송	영	순	59	"	이	길	자	60
"	박	연	순	72	"	오	순	여	70
"	강	삼	식	74	"	김	선	순	65
"	최	종	임	72	"	이	은	우	80
"	송	남	선	65	"	김	점	순	80
"	권	선	기	70	"	이	종	순	77
"	안	교	순	82	"	유	옥	희	80
"	전	순	덕	78	"	현	순	예	70
"	정	기	순	77	"	이	춘	난	65
키	조	규	남	73	"	배	봉	천	80
"	김	용	인	65	"	이	춘	희	65
"	김	산	옥	67	"	김	용	아	72
"	송	영	순	73	쇠	박	영	란	55
"	조	귀	남	65	"	박	경	순	42
"	우	등	금	76	"	박	인	옥	40
"	송	영	순	69	징	김	경	숙	45
"	배	상	주	72	"	이	단	자	51
"	송	순	녀	72	장고	김	철	자	47
"	금	주		66	"	유	재	금	42
"	유	지	연	86	"	조	선	영	40
"	오	순	천	60	"	정	진	엽	39
"	신	순	님	73	"	박	봉	숙	43
"	이	재	희	63	"	김	영	자	46
"	양	우	연	70	북	김	성	례	38
"	김	점	분	66	"	강	영	복	32
"	김	영	식	55	"	송	용	화	37
"	최	순	여	60	"	김	옥	수	41
"	이	재	현	77	소리	한	순	복	63
"	안	전	숙	60	"	최	명	님	55

- ◆전승지/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일원
- ◆연인원/165명(농악포함)
- ◆발 곶/김 재 범(논산 놀외국악원장)
- ◆자 문/사 재 동(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고증협조:박 경 식(87세 도안동)
 - 송 순 영(75세 도안동)
 - 오 귀 영(70세 도안동)
 - 송 석 우(75세 도안동)
 - 이 춘 배(81세 도안동)
 - 김 영 래(77세 도안동)
 - 박 민 흥(74세 도안동)
- ◆구성연출:박 현 우(대전 시립 연정 국악원)





